

# 중앙포 최대 인프라 사업, SK가 땀다

한국도로공사 등 컨소시엄, 카자흐 알마티 순환도로 7000억 금융약정

카자흐스탄 최초의 인프라 민관협력 사업(PPP)인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SK건설은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MDB)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건설은 한국도로공사, 터키 알랄코, 마크올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2월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MIID)와 알마티 순환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공사비는 5억4000만달러(약 6500억원) 규모로 중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민관협력사업 중 최대 규모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중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슬람개발은행(IsDB), 유라시아개발은행(EDB) 등 다자개발은행(MDB)들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나머지 사업



알마티 순환도로 조감도

/SK건설

비는 주주사의 출자금을 통해 총당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SK건설이 유럽, 동남아시아 등 기존의 인프라 시장을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자흐스탄의 최초 민관협력사업인 만큼 대주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 금융약정이 성사됐다고 SK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수도인 알마티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총 연장 66km의 왕복 4~6차로 순환도로와 교량 21개, 인터체인지 8개를 신설한다. 준공 후 운영한 뒤 카자흐스탄 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운영·양도)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확정 수입을 지급하는 AP방식을 채택해 교통량 예측 실패에 따른 운영수입 변동 리스크가 없다. 총 사업 기간은 20년으로 공사기간 5개월, 운

영기간 15년 10개월이다.

SK건설은 터키 건설사 두 곳과 함께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운영을 맡는다. 출자자로도 참여해 공사수익 외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을 얻게 된다. SK건설의 시공 및 출자지분은 33.3%다.

SK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현재 총 4건의 인프라 개발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2016년 12월에 준공해 현재 운영 중이며, 대림산업과 함께 수주한 세계 최장 차나칼레 현수교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시공 중이다.

영국에서는 런던 템즈강 하부를 관통하는 실버타운 터널 사업이 지난해 11월 금융약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사업인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이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로 인해 금융약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며, “터키, 영국 등 유럽에 이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왼쪽부터)해외기관투자자 액티스 캐피탈(Aktis Capital)의 대니 옹 이(Danny Ong Yee) 회장, 무궁화신탁 이용만 회장, 신한금융 GIB 사업부문 정윤진 부문장. /신한금융투자

## 신한금융투자

### 무궁화신탁 해외CB 발행 1700만 달러, 만기 5년

신한금융투자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주관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행규모는 미화 1700만 달러, 만기 5년의 홍콩 사모발행이다.

무궁화신탁은 본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토지 신탁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운용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주식으로 전환 시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CB발행은 신한금융투자가 대표주관사 및 총액인수인으로서 참여하고, 해외 기관투자자로는 글로벌 투자그룹인 액티스그룹이 참여하였다. 신한금융투자 홍콩 법인은 CB 등록발행과 관련된 홍콩 유관기관 협의와 결제 및 전환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손영지 기자

## ‘기생충’ 테마 바른손, 4일째 상한가 행진



지난 9일(현지시간)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 수상한 후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배급사 CJ ENM 등도 급등 영화 콘텐츠 IP 보유 수혜 전망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이 나흘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기생충’이 지난 10일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4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바른손은 기생충 제작사인 바른손이엔에이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바른손 13일 코스닥시장에서 바른손은 전 거래일보다 29.88% 오른 57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바른손이엔에이 역시 상한가로 4955원에 거래됐다.

상승세는 다른 기생충 테마주에서도 나타났다. 투자배급사였던 CJ ENM(8.65%)부터 투자한 벤처캐피탈 컴퍼니케이(29.54%), 큐캐피탈(30.0%)도 급등했다. 큐캐피탈의 최대주주 지엔코도 29.93%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전 세계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들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을 주시하며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기생충 테마주 급등세는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익이 확정된 후 수익은 투자자에 지분대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바른손과 CJ ENM 등의 정확한 투자지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 수준을 가정하면 70억원 이상의 수익이 2년에 걸쳐 반영된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생충의 콘텐츠 IP를 보유한 대형사, 제작사 위주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태화기자 alvin@

## 삼성증권, 싱가포르 주식 온라인 매매서비스

리츠 배당수익률 6% 상회 시총 규모 글로벌 5위 해당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싱가포르 주식시장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시장 규모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도 높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들이 상장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매매 서비스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주식을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도 기존 오프라인 대비 절반 수준인 0.25%로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주식시장의 최고 매력 투자처로 꼽히는 리츠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싱가포르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6%

를 상회한다. 글로벌 리츠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의 배당수익률인 4% 수준과 비교해도 약 50%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투자대상도 다양해 작년 말 기준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42개에 달하고 이들 리츠의 시가총액은 전체 싱가포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14%에 이를 정도다. 이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35배 수준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 이어 다섯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온라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이용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실시간 시세 무료 이벤트를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 싱가포르 실시간 시세 신청 및 매매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삼성증권 휴대용시스템(HTS), 모바일 앱(mPOP)에서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사 점검회의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 예탁원, 코로나19 대응 전사 점검회의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2일 서울사옥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사장 주재 전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전염병대응계획을 보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사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정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개인위생용품(마스크, 손세정제)을 배포하고 임상증상 확인을 위해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설치했다.

또 감염자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감염자 격리조치,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파악 관리 등 상황별 세부 시나리오도 마련한 상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공시위반조치 149건 전년비 두 배 이상 ↑

사업보고서 등 위반 77건 달해

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건수가 급증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 전년 대비 84건(129.2%)이 늘었다.

중조치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각각 35건, 29건이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서 경고·주의 등이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7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은 19건이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각각 54개사, 49개사로 비중이 비슷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